광주작가 中서 미래를 그리다

〈김해성〉

〈김진화〉

〈김일근〉

〈전현숙〉

〈조강현〉

광주시립미술관, 환티에 창작센터 입주작가 5명 선정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작품활동·전시회

"현대 미술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작가들이 현대미술의 중심인 중국 베이징 따산쯔 환티에(環鐵) 창작예술지구에서 '희망 일기'를 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오는 12월1일 이곳에 문을 여는 창작센터에 입주할 1기 작가로 김해성(48·회화·조선대 미술학과 졸업), 전현숙(46·회화·전남대 예술대학), 조강현(45·회화·호남대 미술학과), 김진화(40·설치 및 회화·호남대 미술학과), 김일근(39·설치 및 조각·조선대 조소과)씨 등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12월1일~2010년 5월20일까지 창작센터에 입주하게 되며, 현지에서 작품 활동과 전시회 등을 열게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들을 위해 중국의 저명한 기획자나 평론가, 화랑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고 세계 미술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현지에서 광주 미술을 알리고, 중국과 광주의 미술 교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숲의 친구들' 연작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김해성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현지 작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지역적인 한계로 별다른 해외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 지역작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세계 무대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무표정한 여자와 남자의 얼굴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서양화가 전현숙씨도 "좋은 작품을 보고, 많은 작가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고 반겼다. 또 창작센터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환티에 창작예술지구에 위치해 있어 이들 작가들의 기법과 작품의 질적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종이를 재료로 독특한 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김일근씨는 "해외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매일 볼 수 있어, 미술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가 공존하는 중국 현지인의 모습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간을 통해 현대인의 자화상을 되짚어 보고 있는 설치작가 김진화씨는 "한국에서의 작업과는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싶다"면서 "수많은 갤러리가 몰려 있어 다양한 전시를 보면서 현지의 특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숲을 형상화한 서정적인 풍경을 담고 있는 조강현씨도 "중국이라는 광활한 풍경과 대륙을 직접 보고, 체험해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풍경을 구상하여 창작의 폭을 한 층 놓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1천여㎡ 규모의 창작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이며, 지역 작가 한 사람에게 170㎡(50평)의 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지방공립미술관이 지역작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에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하는 것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피아노·첼로·바이올린 협연무대

유진교향악단 8일 문예회관 82번째 정기연주회

〈한만섭 단장〉

〈김연주 지휘자〉

유진교향악단(단장·한만섭, 상임지휘자·김연주) 제 8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피아노, 첼로 등 다양한 협연무대가 마련된다.

소프라노 김선희씨는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과 이흥렬 곡 '꽃구름 속에'를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김그린씨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1악장'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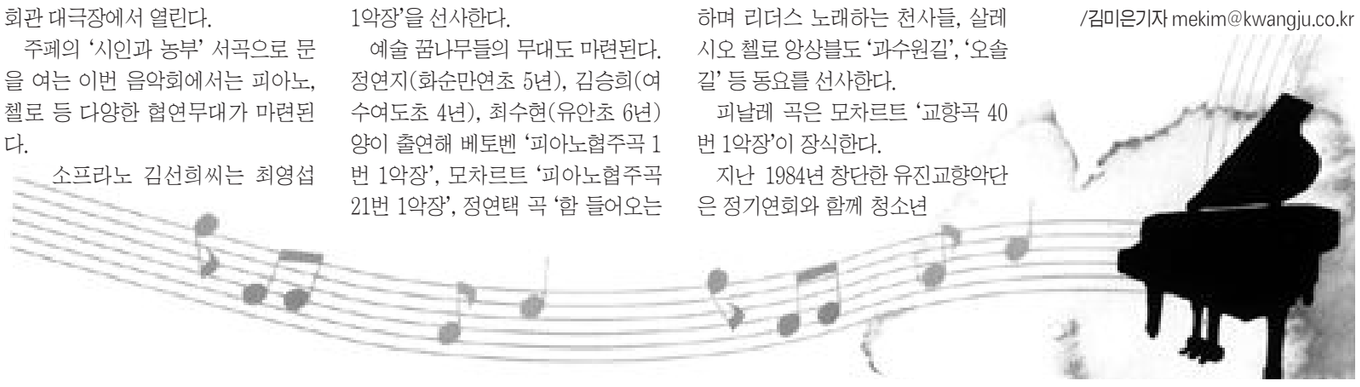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정연지(화순만연초 5년), 김승희(여수여도초 4년), 최수현(유안초 6년) 양이 출연해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1악장',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 1악장', 정연택 곡 '함 들어오는 날'을 들려준다.

또 오주연·수연씨는 바하의 '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협연하며 리더스 노래하는 천사들, 살레시오 첼로 앙상블도 '과수원길', '오솔길' 등 동요를 선사한다.

피날레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이 장식한다.

지난 1984년 창단한 유진교향악단은 정기연회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를 진행해 왔다. 문의 010-5648.65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아니다"

법원 "진품으로 추정된다"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에 대해 '진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진품임을 주장하며 2년여 동안 소송을 벌여온 서울옥션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소장자인 존 릭스가 1954~56년 한국에 근무하면서 박 화백에게서 작품을 받은 것은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결과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50년대 미공개작이면서도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고 보관 상태가 완벽해 의심을 살 만한 데도, 경매 주관사에서 감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위작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거래됐으나 그해 12월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옥션은 작년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태양과 싸우는 수탉들의 형상

김종 개인전… 금호갤러리

서양화가 김종씨가 오는 11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10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허공, 그 눈부신 상차림-월인천강을 거닐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태양과 싸우는 수탉, 달과 노니는 나비 등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물들였다.

이들 작품의 배경은 허공이며, 사물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 등 다양한 상상력을 오방색으로 표현했다.

신동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김씨는 창작에 대한 열정을 시와 미술로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2.

/오광록기자 kroh@

'태양에게 덤비는 수탉들'

가을에 감상하는 한국춘란

7~8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사)대한민국자생란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완기)는 오는 7~8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자생란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춘란 엽예품'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이윤교, 전정희, 이남용, 정상인, 박준길, 윤양환, 김형주, 박효섭, 정명호씨 등 50명의 회원이 참여해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춘란 200여점을 선보인다.

춘란 전시는 대부분 꽃이 피는 봄에 열리는데, 이번 전시는 파란 춘란의 잎을 감상하기 위한 전시이다.

이완기 회장은 "춘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고,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가꾼 작품이다"고 말했다. 문의 010-5604-286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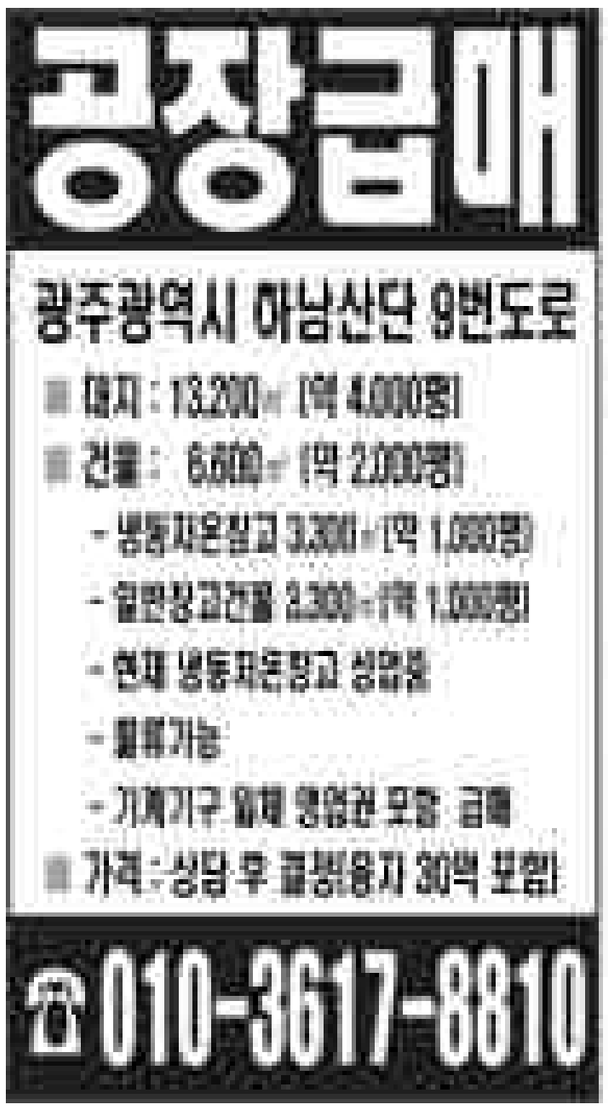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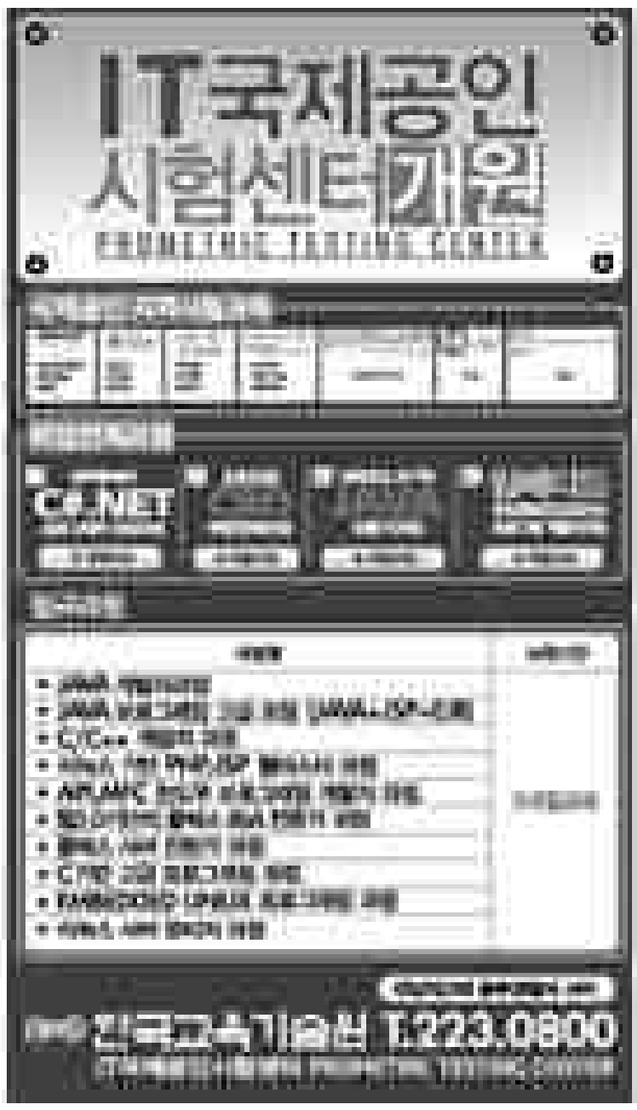
이완기씨 출품 '진주수'

깊어가는 가을 詩의 울림

빛고을 시 낭송의 밤 9일 광주영상예술센터

깊어가는 가을, 광주시낭송가협회(회장 이미영)가 9일 오후 7시 광주영상예술센터(사직공원 옛 KBS 광주총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빛고을 시 낭송의 밤'을 연다.

'태양이 꽃을 물 들이듯 시(詩)는 우리의 마음을 물 들인다'는 슬로건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번 시낭송 밤은 각박해지는 현실속에서 시를 사랑하고, 시를 낭송함으로써 문화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행사에는 금용웅씨의 대금연주와 진현지씨의 한량무, 이현숙·김예슬씨의 가야금 산조 연주도 함께해 시의 울림과 감동, 향기를 전한다. 박행자, 이숙자, 방영남, 이슬아, 양석승, 이미영, 이기환, 김혁순, 손덕순, 장진규, 김혜경, 정영숙씨 등이 참여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